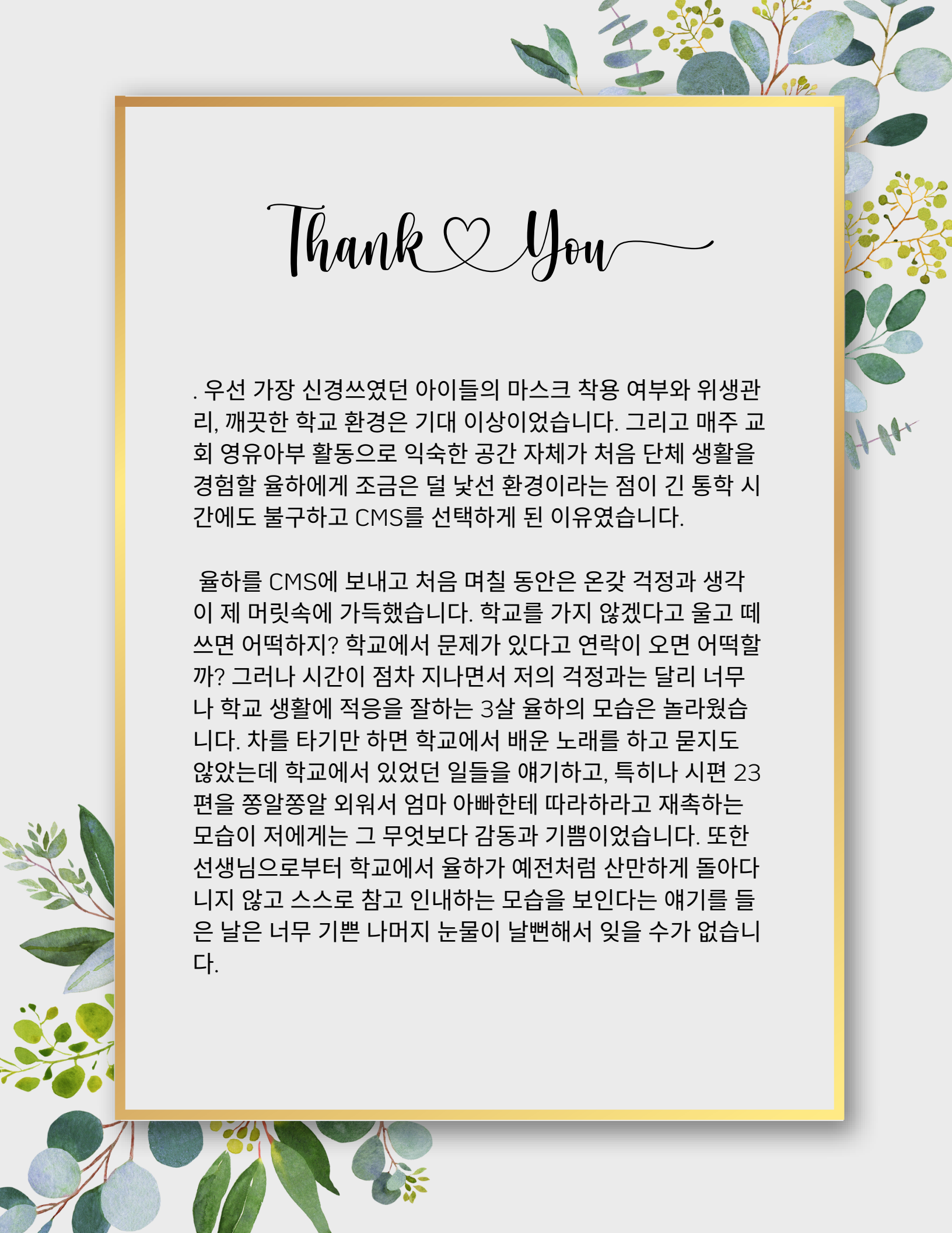


Thank You

Dear. CMS Teachers

율하는 매일 아침 학교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쩌다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에는 아직 말을 또박또박 잘하지 못하면서도 “선생님 보고 싶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처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율하가 정말 학교와 선생님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선생님들이 사랑과 진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신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곳이 학교라는 것을 알고 느끼기 때문에 율하는 매일 아침 학교가야지 하면서 아침잠을 깨고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갈 준비를 합니다.


율하는 코로나로 인해 3살이 다 되어가도록 학교, 친구들이라는 단어도 모른채 집에서 엄마옆에만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율하의 언어발달이 늦은것 같다는 초조함과 다른 아이들에 비해 산만한 모습에 대한 걱정, 불안함으로 학교를 보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에 프리스쿨이 여러군데가 있었지만 크게 고민하지 않고 교회 광고를 통해 익숙한 CMS로 마음을 굳히고 학교 투어를 해보았습니다.



Thank You

. 우선 가장 신경쓰였던 아이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위생관리, 깨끗한 학교 환경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 영유아부 활동으로 익숙한 공간 자체가 처음 단체 생활을 경험할 율하에게 조금은 덜 낯선 환경이라는 점이 긴 통학 시간에도 불구하고 CMS를 선택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율하를 CMS에 보내고 처음 며칠 동안은 온갖 걱정과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울고 떼 쓰면 어떡하지?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오면 어떡할까?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저의 걱정과는 달리 너무나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3살 율하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차를 타기만 하면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하고 묻지도 않았는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특히나 시편 23편을 쫓알쫓알 외워서 엄마 아빠한테 따라하라고 재촉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감동과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선생님으로부터 학교에서 율하가 예전처럼 산만하게 돌아다니지 않고 스스로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를 들은 날은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이 날뻐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Thank You

CMS를 통해 변화하고 성장한 율하의 모습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율하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걱정과 고민을 더 많이 했던것 같습니다. 엄마로써 모든게 처음이라 부족하고 걱정이 앞서지만 기도로 간구하고 주님손에 올려놓는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율하를 통해 보여주실 주님의 계획과 은혜에 설레입니다. 마지막으로 율하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CMS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With Love,

Noh Ellie